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김 은 정† 김 인 경 정 태 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특성 및 지속적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610명)과 중학교 1학년(620명)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4개월 간격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피해성향은 가해성향에 비해 시간적으로 안정성이 높았으며, 1차 조사시의 피해성향과 자아 존중감 그리고 신체화 증상 및 우울/불안 증상이 2차 조사시의 피해 성향 중 21.9%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1차 조사시에 가해 및 피해성향을 모두 보이지 않았던 비교집단의 학생들이 2차 조사시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비교집단에서 피해 집단으로 소속이 변한 학생들은 2차 조사뿐만 아니라 1차 조사에서도 심리 사회적 발달 수준과 행동의 적응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집단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집단 아동을 위한 적응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집단괴롭힘, 피해집단, 심리적 취약성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은 가족관계의 질 뿐만 아니라 학교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또래관계의 질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폭력 및 집단 따돌림과 같은 집

단 괴롭힘(bullying)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발달과정 뿐만 아니라 적응력의 증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여러 가지 심리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박경숙, 손희권과 손혜정, 1998; Olweus, 1994).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05-C00012)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은 정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인간행동연구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120-749 / FAX: 02-365-4354 / E-mail: eunjeongkim@intizen.com

즉, 학교장면에서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들은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위험집단으로서, 이들은 비행, 학교 중도 포기 및 그 외 심리적 부적응을 보일 수 있다(Kupersmidt & Coie, 1990).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관련하여서 고위험 피해집단을 확인하는 것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또래관계 적응을 돕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전형적인 특징들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들은 매우 다양하다(Egan & Perry, 1998; Olweus, 1994; Perry, Kusel & Perry, 1988). 일반적으로 이들은 불안, 우울, 낮은 자긍심과 외로움 등을 겪으며, 등교 거부 및 신체적인 불편감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한다(Kochenderfer & Ladd, 1996). 집단 괴롭힘의 피해 학생들 대부분은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하여 또래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거나 좋은 친구로 인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우정관계를 유지하거나 협동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을 보인다(Egan & Perry, 1998). 또한 피해 집단의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자기를 지각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며 사회적으로도 철회된 행동을 보인다(Haselager & Van Lieshout, 1992; Olweus, 1980).

지금까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들의 행동적인 취약성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런 연구들은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이 타인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게끔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 대다수는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여러 행동적인 신호들을 통해 드러낸다(Egan & Perry, 1998). 이들은 잘 울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며, 공격자들에게 복종하거나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Perry, Williard & Perry, 1990; Schwartz, Dodge, & Coie, 1993). 피해집단의 이러한 속성은 대부분 그들의 내현적인 행동과 관련되고, 이 중 일부 학생들은 파괴적인 행동, 비효율적인 공격적 행동 및

싸움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Perry et al., 1988). 요약하면, 피해집단이 보이는 전형적인 속성은 복종성, 내현화된 행동 그리고 신체적인 취약성이며 이러한 행동 속성으로 인해 피해경험이 지속된다(Schwartz et al., 1993).

피해집단의 하위유형

비록 앞서 살펴본 연구가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들을 거의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하였지만, 이들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피해집단내 하위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Olweus(1978)는 집단 괴롭힘 상황에서 나타나는 피해집단의 유형을 수동적인 피해자 혹은 복종적 피해자(passive victim or submissive victim)와 공격적 피해자(aggressive victim)로 구분하였다. 수동적인 피해자 집단은 앞 절에서 살펴본 전형적인 피해 집단의 행동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피해자들은 공격적인 피해자들에 비해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상대적으로 더 우울해 하고 더 낮은 자긍심을 보인다. 이에 비해 공격적인 피해자 집단의 특징은 불안과 공격적인 특성을 동시에 보인다는 것이다. 공격적 피해자들은 주의집중에 문제가 있으며 긴장감과 초조감을 많이 표현한다. 또한, 이들의 행동은 다른 학생들을 화나게 만들어 부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Olweus, 1993).

Olweus(1978)가 구분한 이 두가지 유형의 피해집단은 선행연구(한종철, 김인경, 김은정, 박윤창과 정태연, 1999)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피해 집단은 수동적인 피해 집단과 그리고 가해/피해 집단은 공격적인 피해 집단과 유사한 행동성향을 보였다. 즉, 피해 집단은 정서 및 행동 부적응과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 전형적인 적응상 문제를 보이는 집단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해/피해 집단은 가해 집단 만큼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공격의 피해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서,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과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기 조절 능력의 부족과 미성숙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자존감 및 정서·행동 적

용 수준에서 피해 집단보다 더 낮을 뿐만 아니라 매우 취약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가해/피해 집단은 부주의하고 충동적이고 미성숙하며 동시에 공격적이어서 따돌림을 당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ierman, Smoot, Aumiller, 1993; Stormshak, Bierman, Bruschi, Dodge & Coie, 1999; Zarkrski, & Coie, 1996). 특히 가해/피해 집단은 비효율적인 공격행동이나 말다툼 등의 외현적인 문제 행동과 사회적 미성숙 등을 함께 보이는 불안정한 집단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또래 관계의 특성에 따라 가해 집단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에 근거해서 볼 때 피해자들을 하위 집단 즉, 수동적 피해 집단과 공격적 피해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집단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이러한 집단구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집단에 대한 이들 연구 결과들을 일관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Schwartz 등(1993)의 연구에서는 피해 학생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소위 수동적인 피해 학생들만 선별하여 연구하였다. 이처럼 비공격적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전형적으로 복종적인 행동 양식을 보였으며(Perry et al, 1990), 이러한 행동양식이 만성적인 또래 괴롭힘의 가능성을 증가시켰다(Schwartz et al, 1993). 결국,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수동적인 피해 집단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피해집단의 특성을 밝힌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피해 집단의 행동특성 및 피해성향의 지속성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이 보이는 행동은 괴롭히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학습된 행동이기 때문에(Wilczenski et al., 1997), 가정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집에서나 학교에서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며(Bennet, 1990), 이러한 통제력 상실감은 인지적, 행동적, 동기

적 그리고 정서적인 결손을 초래한다(Thomson, 1981). 일단 피해자가 되면 다시 피해를 당하기 쉬운데,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Janoff-Bilman, 1992),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학교 공포증, 무단 결석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과 같은 도피 행동을 보일 수 있다(Lowenstein, 1978). 또한, 괴롭힘 행동은 공격행동과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이며(Khatri, Kupersmidt, & Patterson, 1994) 상당 기간 동안 다양한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괴롭힘을 당한 유치원 아동들은 다음 학기까지도 등교를 회피하고 외로움을 나타냈으며(Kochenderfer & Ladd, 1996), 초등학생들은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상을 보였고(Hodge, Malone, & Perry, 1997), 청소년 학생들은 10년 후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자긍심과 높은 우울증상을 나타냈다(Olweus, 199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어 만성화된 행동특성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속적인 피해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특성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는 원인인지 아니면 이러한 괴롭힘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최근 Egan과 Perry(1998)는 3학년에서 7학년 사이의 189명 남녀 학생들을 6개월 간격으로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낮은 자긍심이었지만, 집단 괴롭힘 경험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낮은 자긍심을 초래했다. 또한, 신체적 허약성과 불안 그리고 사회적 기술과 같은 행동적인 취약성이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긍심이 높은 아동보다 낮은 아동의 경우에 더 컸다. 이는 낮은 자아개념이 또래 괴롭힘의 희생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집단은 그들의 취약한 행동특성 및 피해경험을 통해 발달한 부적응적 심리특성 때문에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속적 피해경험은 그들을 무기력하

게 만들어 부적응적 행동특성이 장기간 유지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시기의 피해성향은 그 이전의 피해성향 및 부적응적 심리적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연구문제

지금까지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려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체계적으로 만성적인 괴롭힘 행동의 선행요인들을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다(Schwartz et al, 1993).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또래 괴롭힘에 기여하는 행동 특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확인해 보는 것은 아동기의 괴롭힘 행동의 가해 및 피해 양상과 관련된 기제를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 경험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중재와 위협집단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 괴롭힘에서 피해성향의 지속성 정도 및 그 지속성을 예측해 주는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약 4개월 간의 간격을 두고 두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이들의 지위상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였다. 첫째, 피해성향의 지속성을 확인하고 관련 변인들의 피해성향에 대한 예측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 및 부적응 행동변인을 예측 변인으로 하여 4개월 후의 피해성향을 예측해 보았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피해성향을 상당부분 예측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둘째, 학기초 집단 괴롭힘과 관련해서 가해 및 피해 성향 모두 보이지 않았던 비교집단 학생들이 4개월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이 그러한 변화에 관련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의 학생들 중에서 4개월 후 피해나 가해/피해집단으로 변한 학생들이 나머지 학생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부적응적이고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이 더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시내 초등학교 4, 5, 6학년(610명)과 중학교 1학년(620명)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1999년 3월 학기 시작후 2주 이내에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약 4개월 후 학기가 끝나기 2주 전인 7월 초에 동일한 연구 대상에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집단 괴롭힘의 지위에 따른 유형 분류. 집단 괴롭힘의 지위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Neary와 Joseph(1994)의 집단 괴롭힘 행동 척도(Bulling-Behavior Scale)와 Callahann과 Joseph(1996)의 또래 괴롭힘 척도(Peer-Victimiz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을 각 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0: 매우 다르다, 3: 매우 비슷하다)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시기에 각각 이들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 조사시기에서 얻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분류하였다. 특정 측정시기에서 한 학생의 가해성향 점수가 그 시기에서의 전체평균(1차: 1.83, 2차: 2.03)보다 크면 가해집단에, 피해성향 점수가 전체평균(1차: 1.67, 2차: 1.77)보다 높으면 피해집단에 할당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시기별로 참가자들을 가해집단, 피해 집단, 가해/피해 집단 그리고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자아 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참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역시 참가자들이 자신을 각 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0: 매우 다르다, 3: 매우 비슷하다)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은 1차시기에만 측정되었다.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의 평가. Peterson(1984)의 아

동 및 청소년용 자아개념 척도(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 SIQYA)를 사용하였다(이춘재, 1991; 김인경, 1994). 이 척도의 하위 9개 영역 중 4개 영역 신체상(body image; 11문항), 대처능력(mastery & coping; 10문항), 친구관계(peer relationship; 10문항),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 17문항)에 관한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역시 참가자들이 자신을 각 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0: 매우 다르다, 3: 매우 비슷하다)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에 대한 평정은 1차시기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63에서 .93이었고 본 자료에서는 .90이었다.

정서적 및 행동적 적응 평가. 정서적 문제와 부적응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Achenbach(1991)의 아동용 행동조사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의 하위척도 중 위축, 신체화, 우울/불안, 공격성, 미성숙 척도 내용을 자기보고 형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위축(withdrawal; 9문항), 신체화(somatization; 9문항), 우울/불안(depression/anxiety; 17문항) 영역을 내현적 행동문제로, 공격성(aggression; 19문항) 하위 영역을 외현적 행동문제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그리고 공격성 영역은 공격의 형태와 내용을 중심으로 요인분석한 결과에 근거해서 통제력 부족행동(8문항), 과시우월적 행동(7문항) 그리고 신체 공격행동(4문항)의 3개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척도 역시 참가자들이 자신을 각 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0: 매우 다르다, 3: 매우 비슷하다)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평정은 1차 및 2차 시기에 모두 이루어졌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이전의 연구에서 .65에서 .97이었고 본 자료에서는 .92이었다.

결 과

1. 2차 시기의 가해 및 피해성향, 자아존중감과 CBCL 점수

본 연구에서 측정한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

표 1. 측정시기내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변 인	1차 시기	2차 시기
가해성향	1.83(.52)	2.03(.42)
피해성향	1.67(.55)	1.77(.54)
자아존중감	2.96(.56)	—
SIQYA		
신체상	2.68(.52)	—
대처능력	2.94(.53)	—
친구관계	3.09(.43)	—
가족관계	2.92(.44)	—
CBCL		
위축	1.92(.52)	1.94(.59)
신체화	1.74(.54)	1.81(.60)
우울/불안	1.95(.52)	1.95(.59)
공격성	1.90(.45)	1.89(.48)
미성숙	1.75(.48)	1.76(.51)

주. 모든 변인은 4점 척도상에서 각각 측정되었으며 각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가해와 피해성향의 점수는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중간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SIQYA의 모든 하위척도 점수는 상당히 높아,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정서 및 행동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CL의 모든 하위척도 점수도 중간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이 매우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자에 근거해서 이후의 자료분석이 이루어졌다.

각 측정시기별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에 관련된 변인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별로 측정한 변인들이 가해

표 2. 각 측정시기내에서 변인들이 갖는 가해 및 피해성향과의 상관계수

변 인	1차 시기		2차 시기	
	가해성향	피해성향	가해성향	피해성향
가해성향	1.000		1.000	
피해성향	.431***	1.000	.460***	1.000
자아존중감	-.319***	-.380***		
<u>SIQYA</u>				
신체상	-.217***	-.307***	—	—
대처능력	-.264***	-.344***	—	—
친구관계	-.352***	-.364***	—	—
가족관계	-.172***	-.400***	—	—
<u>CBCL</u>				
위축	.245***	.414***	.209***	.450***
신체화	.206***	.345***	.194***	.396***
우울/불안	.315***	.475***	.200***	.518***
공격성	.573***	.389***	.152***	.366***
미성숙	.299***	.505***	.198***	.537***

* $p < .05$. *** $p < .001$.

성향 및 피해성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1차 조사시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의 상관관계는 $r = .431$ ($p < .01$), 그리고 2차 조사시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의 상관관계는 $r = .460$ ($p < .01$)으로 나타나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이 서로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1차 시기에서 가해 및 피해성향은 자아존중감 및 SIQYA와 부적상관이 그리고 CBCL과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특히, 가해성향보다는 피해성향과의 상관이 더 크게 나타나, 이러한 변인들이 피해집단과 더 크게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경향성은 2차 시기에서도 나타났는데, CBCL이 가해성향과 갖는 정적 상관보다는 피해성향과 갖는 정적 상관이 더 컸다.

2차 조사시의 피해성향에 대한 예측

1차 시기에 측정한 변인들이 2차 시기에 측정한 가해성향 및 피해성향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집단 괴롭힘 척도의 1차와 2차 점수간 상관관계의 경우 가해성향은 $r = -.048$ 로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피해성향은 $r = .429$ ($p < .01$)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1차 시기에 측정한 자아존중감과 SIQYA는 2차 시기의 가해 및 피해성향과 부적인 상관을 그리고 CBCL은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성향의 경우에 이 상관이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성향과는 달리 피해성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정성에 1차 시기에 측정한 변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1차 조사에서 측정한 여러 가지 심리적 변

표 3. 1차 시기에 측정된 변인들이 2차 시기에 측정된 가해 및 피해 성향과 갖는 상관의 크기

1차 시기 변인들	2차 시기	
	가해 성향	피해 성향
가해성향	-.048	.163***
피해성향	.134***	.429***
자아존중감	-.094**	-.244***
SIQYA		
신체상	-.063*	-.199***
대처능력	-.094*	-.203***
친구관계	-.116***	-.282***
가족관계	-.145***	-.247***
CBCL		
위축	.128***	.276***
신체화	.150***	.265***
우울/불안	.142***	.309***
공격성	.079**	.219***
미성숙	.098***	.310***

* $p < .05$. ** $p < .01$. *** $p < .001$.

인들이 2차 조사시의 피해 성향을 각각 독립적으로 예측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자료를 기초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1차 조사시의 피해 성향 점수를 포함시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차 조사시의 자아 존중감을, 세 번째 단계에서는 CBCL의 내현적 문제행동(위축행동, 신체증상 및 우울/불안)을 포함시켰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CBCL의 외현적 문제행동(공격성 - 통제력부족, 과시우월적 행동, 신체적 공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SIQYA의 하위 요인들을 포함시켰다.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 1차 조사시의 피해 성향 점수는 2차 조사의 피해성향 점수를 18.4%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 .184$, $F_{1,1065} = 239.60$, $p < .001$, 1차 조사시의 피해 성향, 자아 존중감과 내현적인 문제 행동은 함께 2차 조사시의 피해 성향을 전체 21.9%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 .219$, $F_{3,914} = 51.30$, $p < .0001$. 1차

조사의 자아 존중감은 2차 조사의 피해성향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독립적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096$, $t = -3.159$, $p < .01$, 내현적 문제 행동 중에서는 신체적 증상($\beta = .075$, $t = 2.094$, $p < .05$)과 우울/불안 증상($\beta = .087$, $t = 1.990$, $p < .05$)이 각각 2차 조사의 피해성향 점수를 예측하는데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CBCL의 공격성 하위 요인들과 SIQYA의 하위 요인들은 모두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비교집단에 속했던 학생들의 2차 조사에서의 집단 소속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에 의한 1차 조사에서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를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 총 382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학기말에 보인 집단 변화를 탐색해 보았다. 1차 조사에서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을 모두 평균 점수 이하로 보고하여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는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간주하였는데, 1차 조사에서 비교집단에 속했던 학생들은 2차 조사에서 네 종류의 집단으로 각각 변화되었다. 1차 조사 대상 총 1230명 중 비교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모두 382명이었고 2차 조사에서 이들은 각각 가해 집단(112명), 피해집단(37명), 가해/피해 집단(74명), 그리고 여전히 비교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159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차 조사에서 변화된 집단에 기초하여 각 집단이 가지는 심리 사회적 변인들에서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표 4). 1차 조사시의 CBCL 모든 하위 척도에 대해서 네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위축행동($F_{3,368} = 4.79$, $p < .01$), 신체화($F_{3,368} = 9.46$, $p < .001$), 우울/불안($F_{3,366} = 4.10$, $p < .01$), 공격성($F_{3,358} = 7.92$, $p < .001$), 미성숙행동($F_{3,372} = 6.33$, $p < .001$)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축 행동과 신체화 증상에 있어서는 피해 집단과 가해/피해 집단으로 변화된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우울/불안과 미성숙 행동에 있어서는 가해/피해 집단으로

변화된 집단성원들이 비교 집단 및 가해 집단으로 변화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공격성의 하위 요인 중 통제력 부족 행동의 수준에 있어서는 네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한 학기를 보낸 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 높은 가해/피해 성향 혹은 피해 성향을 보인 학생들은 다양한 행동 증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결과는 2차 조사에서 피해 집단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1차 조사에서 공격성향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가해집단으로 분류된 경우보다도 더 높은 공격성 점수를 보였다.

심리 사회적 발달수준을 측정하는 SIQYA의 하위 척도 중 신체상($F_{3,361}=2.27, p<.05$)과 또래 관계 적응 수준에서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_{3,349}=$

표 4. 1차 시기에 비교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2차시기의 가해/피해 점수에 근거해서 분류된 집단간 평균비교

변 인	2차 시기 때 지위의 변화	가해집단 (1) (111명)	피해집단 (2) (37명)	가해/피해 집단(3) (73명)	비교집단 (4) (153명)	F
자아존중감		3.21(.54)	3.12(.60)	3.13(.50)	3.23(.47)	.90
SIQYA						
신체상		2.89(.45)	2.76(.74)	2.72(.50)	2.90(.47)	2.27*
대처능력		3.15(.52)	3.18(.48)	3.05(.43)	3.17(.49)	1.08
친구관계		3.03(.43) ^{ab}	3.00(.51) ^{ab}	2.98(.38) ^a	3.05(.34) ^b	4.05**
가족관계		3.31(.32)	3.24(.35)	3.19(.34)	3.29(.40)	1.78
CBCL						
위축		1.68(.48) ^{ac}	1.91(.52) ^b	1.85(.44) ^{bc}	1.66(.51) ^a	4.79**
		1.61(.49) ^a	2.04(.61) ^b	2.05(.57) ^b	1.68(.51) ^a	14.82***
신체화		1.50(.42) ^{ac}	1.68(.62) ^{ab}	1.78(.50) ^b	1.46(.41) ^c	9.46***
		1.49(.46) ^a	1.89(.60) ^b	1.93(.63) ^b	1.54(.47) ^a	15.26***
우울/불안		1.67(.43) ^a	1.81(.49) ^{ab}	1.84(.43) ^b	1.65(.42) ^a	4.10**
		1.62(.48) ^a	2.04(.59) ^b	2.05(.57) ^b	1.60(.45) ^a	20.56***
미성숙		1.47(.36) ^a	1.60(.38) ^{ab}	1.70(.45) ^b	1.49(.37) ^a	6.33***
		1.48(.36) ^a	1.89(.57) ^b	1.85(.50) ^b	1.49(.39) ^a	21.11***
공격성(전체)		1.53(.32) ^a	1.86(.40) ^b	1.63(.32) ^a	1.62(.35) ^a	7.92***
		1.51(.37) ^a	1.97(.40) ^b	1.78(.40) ^b	1.60(.40) ^a	15.86***
통제력부족		1.24(.29)	1.35(.34)	1.25(.25)	1.28(.29)	1.27
		1.24(.31) ^a	1.59(.45) ^b	1.45(.37) ^b	1.31(.37) ^a	10.05***
과시우월적		1.87(.52) ^a	2.35(.63) ^b	2.02(.57) ^a	1.98(.64) ^a	5.88**
		1.79(.62) ^a	2.41(.66) ^b	2.10(.61) ^{bc}	1.89(.67) ^{ac}	10.22***
신체적		1.67(.45) ^a	2.12(.61) ^b	1.84(.57) ^a	1.79(.53) ^a	7.05***
		1.64(.50) ^a	2.10(.50) ^b	1.99(.48) ^b	1.77(.53) ^a	11.70***

주. CBCL의 점수 중 위의 수치는 1차조사 점수이고 아래수치는 2차조사 점수임. 집단간 유의도 검증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같은 첨자를 가지고 있는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p < .05$ ** $p < .01$ *** $p < .001$.

4.05, $p < .01$. 피해집단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었으며,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네 집단 중 가해/피해 집단으로 변화된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아 비교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마지막으로 1차 조사에서 측정한 자아 존중감에 있어서는 네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차 조사에서는 CBCL상에서 네 집단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해 집단으로 변한 집단과 여전히 비교 집단에 남아있는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주로 피해 집단과 가해/피해 집단으로 변한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내현화 문제 행동인 위축, 신체화 및 우울/불안 행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 상황에서 일어나는 집단괴롭힘 현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의 피해 성향에 초점을 두고 피해집단의 위험성이 높은 학생들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변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2차 조사시의 피해행동을 예측해 주는 변인들을 확인해 본 결과, 1차 조사시의 피해 성향을 통제 한 뒤에도 자아 존중감과 내현적인 문제 행동 수준은 독립적인 예측력을 보였다. 따라서 집단괴롭힘 상황에서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이후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부적응이 예상되는 위험 집단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과 내현적인 문제 행동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관계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피해 집단에 속하게 될 심리적 취약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심리적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4개월 간의 간격을 두고 학기 초와 학기말 두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

괴롭힘 현상을 추적 조사 하였다. 학기초 새로운 집단 구성원들과의 관계형성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집단괴롭힘 현상이 학기말에 가서는 그 양상이 표면화되어 이에 따른 집단괴롭힘 하위 집단이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1차 조사에서는 가해 성향 및 피해 성향을 모두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4개월이 지난 2차 조사시에는 어떤 집단 괴롭힘 하위 집단으로 변화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1차 조사시에 비교 집단에 속했던 학생 총 382명 중 29.7%에 해당하는 112명이 가해 집단으로 변화되었으며, 피해 집단과 가해/피해 집단으로도 각각 9.89%와 19.5%로서 37명과 74명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40.9%만이 여전히 비교 집단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학기초에는 집단 괴롭힘 현상에 관여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이와 관련된 가해 혹은 피해 성향을 보였다.

셋째, 1차 조사와 2차 조사간의 가해 및 피해 성향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해 본 결과, 피해 성향은 가해 성향에 비해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괴롭힘 현상에서 가해 행동은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가해 행동의 원인으로 안정적인 개인적 성향도 중요하지만, 다른 상황적인 요소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반면에 피해 성향의 경우는 꽤 안정적인 성향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적인 취약성 요인과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경험은 시간적 안정성이 있으며,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이러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Wilczenski et al, 1997)는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그 이유는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은 변화하려는 시도를 해도 또래들이 이에 대한 긍정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Hymell, Wagner & Butler, 1990), 이러한 괴롭힘은 아동의 외로움, 낮은 자긍심 그리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고 발달시킬 기회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이다(DeRosier, Kupersmidt, & Patterson, 1994). 피해집단의 초기의 비주장적인 행동은 만성적인 괴

롭힘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래 괴롭힘에 있어서의 역할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초기에도 피해집단의 사회적 행동은 복종적이었고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하였다(DeRoiser et al., 1994).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4개월후의 피해 성향을 예측하는데 개인의 낮은 존중감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외에도 신체증상 및 우울/불안과 같은 내현적인 문제 행동이 피해성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기의 복종적 행동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또래의 행동목표가 되는 취약행동이며 피해 성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데 기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차 조사시의 집단 구분에 근거하여 네 집단에 대해 1차 조사시의 CBCL SIQYA, 그리고 2차 조사시의 CBCL을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비교 집단에서 피해 집단으로 변한 학생들이 모든 척도에서 부정적인 면을 나타냈다. 네 집단 중에서 피해 집단의 특성을 대표해 주는 변인들은 특히 또래 집단에서 집단 괴롭힘의 피해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생각되며, 본 연구 결과, 이런 변인들은 내현적인 문제 즉, 위축행동, 신체증상 및 우울/불안과 같은 행동특성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집단으로 변화된 학생들은 1차 조사에서도 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이고 심리 사회적 발달상 취약한 면을 보인 학생들이었으며, 또한 4개월이 지난 후 피해 대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한 후에도 결과적으로 부적응 양상을 강하게 드러내는 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기말에 피해경험을 보고한 학생들은 학기초기에 위축행동을 많이 보였고 이외에도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이는 학생들이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행동상 부적응 요소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학기초에는 괴롭힘 상황에 아직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또래관계 상황에서 괴롭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성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행

동상 취약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기대와는 달리 피해 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는 요인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2차 조사시에 피해 경험을 주로 보고한 학생들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1차, 2차 조사 모두에서 공격성향을 보인 점은 흥미로운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Cole과 Carpentieri (1990)의 결과와 유사한데, 따돌림을 당한 아동들은 다른 일반 아동들에 비해 우울증상과 공격성향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Hodgens과 McCoy(1989)는 따돌림을 당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아동들은 따돌림을 당하면서 비공격적인 아동들에 비해 우울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가해성향과 피해성향간의 상관은 높게 나타나 이들 행동성향이 서로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공격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객관적인 평가 도구인 CBCL을 자기 보고식으로 바꾸어 실시하였기 때문에 외현적으로 드러난 공격행동의 수준을 드러내기 보다는 잠재되어 있는 공격 욕구나 억압된 분노감정등을 반영해 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기초와 학기말을 기준으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집단괴롭힘 행동 변화를 살펴 보았고 추적 연구를 기초로 피해 성향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 행동 요인들과 심리적 취약성을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집단 괴롭힘 행동은 시간에 따라 상당히 변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단기 횡단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관련되는 취약 요인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피해 집단의 학생들 내에서도 공격적인 성향과 수동적인 성향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구분된 연구들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들 집단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나 심리적 취약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의 측정도구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이 제한점이며,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교사나 부모들을 통

한 행동 평가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경(1994).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연구: 가족관계, 분리개념화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숙, 손희권, 손혜정(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8-19.
- 이민아(1998). 초등학교의 집단 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춘재(199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1, 29-45.
- 이춘재, 광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연구 : 실태, 특성 및 대책.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 보고서.
- 한종철, 김인경, 김은정, 박윤창, 정태연(1999).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1차 연구. 한국 심리학회 연차대회초록집.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 - 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ustin, S., & Joseph, S.(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 - 456.
- Bennet, J.C. (1990). 'Nonintervention into siblings' Fighting as a catalyst for learned helplessness', *Psychological Reports*, 66, 139-45.
- Bierman, K.L., Smoot, D. L., & Aumiller, K.(1993).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rejected, aggressive (nonrejected), and rejected(non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64, 139-151.
- Callaghan S., & Joseph, S. (1995). Self-concept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61 - 163.
- Cole, D.A., & Carpentieri, S. (1990). Social status and the comorbidity of child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748-757.
- DeRosier, M.E., Kupersmidt, J.B., & Patterson, C.J (1994). Children's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chronicity and proximity of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5, 1799-1813.
- Egan, S.K., & Perry, D.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4, 299-309.
- Haselager, G.J.T., & Van Lieshout, C.F.M. (1992). 'Social and Affective Adjustment of Self and Peer Reported Victims and Bullies', Paper presented at the 5th European Conference on Developmental Psychology, Seville.
- Hodge, E.V.E., Malone, M.J. Jr., & Perry, D.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 Psychology*, 33, 1032-1039.
- Hodgens J.B. & McCoy, J.F. (1989). Distinctions among rejected children on the basis of peer-nominated agg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21-128.
- Hymel, S., Wagner, E., & Butler, L.J. (1990). Reputational bias: view from the peer group. In S.R. Asher & J.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56-18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noff-Bi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s : Towards a New Psychology of Trauma*, NY: Free express.
- Khatri, P., Kupersmidt, J., & Patterson, C.J.(1994).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as predictors of self-report of behavioral and emotional adjustment*. Poster session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Human Development Pittsburgh, PA.
- Kochenderfer, B.J., & Ladd, G.W.(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Kupersmidt, J., & Coie, J.D. (1990). Preadolescent peer

-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Kupersmidt, J., & Khatry, P. (1995).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 across adolescence. In N.R. Crick (Chair), *Recent trends in the study of peer victimization*.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Lowenstein, L.F. (1978). 'Who is the bully?'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31, 147-9.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e can do*. Blackwell Oxford UK & Cambridge USA
- Olweus, D. (1992).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H. Rubin & J.B. Asendorf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Development Psychology*, 16, 644-60.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 :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 Hemisphere.
- Perry, D.G., Kusel, S.J., & Perry, L.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 Psychology*, 24, 807-14.
- Perry, D.G., Perry, L.C., & Kennedy, E.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U. Shantz & W.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301-32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ry, D.G., Willard, J.C., & Perry, L.C. (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4310-132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wartz, D., Dodge, K.A., & Coie, J.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tormshak, E.A., Bierman, K.L., Bruschi, C., Dodge, K.A., Coie, J.D.,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9). The relation between behavior problems and peer preference in different classroom contexts. *Child Development*, 70, 169-182.
- Thompson, S.C. (1981). Will it hurt less if I can control it? A complex answer to a simple Question, *Psychological Bulletin*, 90, 89-101
- Wilczenski, F.L., Steegman, R., Braun, M., Feeley, F., Griffin, J., Horowitz, T., & Olson, S. (1997) Children as victims and victimizers : Interventions to promote 'fair play'.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8, 81-89.
- Zarkriski, A. L., & Coie, J. D. (1996). A comparison of aggressive-rejected and non aggressive-rejected children's interpretations of self-directed and other-directed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7, 1048-1070.

원 고 접 수 일 : 2000. 7. 10.

수정 원고 접수 일 : 2001. 10. 4.

게 재 결 정 일 : 2000. 12. 19.

Psychological Vulnerabilities to Victimization at School Bullying

Eun Jeong Kim Inkyung Kim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able victims at the school bullying contexts. To pursue this goal, we surveyed twice 1,230 identical students of the 4-7th grade, with four months apart. Results indicated that the status of victims was more stable over two different time points than that of bullies. The degree of victimization at the second wave was predicted best by its degree at the first wave. Moreover, it was also predicted substantially by the aggregate of self-esteem, somatic symptom, and depression/anxiety symptom. We also explored changes in status of school bullying at Time 2 for those who were neither victims nor bullies at Time 1. It was found that victims at Time 2 was vulnerable to problems with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development of programs for prevention of school bullying.

Keywords :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psychological vulnerability